

# 이스라엘-팔레스타인지도 제작과 지명 바꾸기/지우기 연구\*

| 최 창 모\*\* |

Choi, Chang-Mo

## A Study on Redesigned Mapmaking and (Re)naming in the Palestine-Israel Conflict

The map of Israel/Palestine has long been used by both Israelis and Palestinians, from their unequal power positions, as a celebrated national symbol. It is virtually the same map, depicting a sliver-shaped land between River Jordan and the Mediterranean, two overlapping homelands in one territory. Thus, a single geo-body appears to contain two antagonistic and asymmetrical nations, locked in a bitter struggle.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e of (Re)naming events, actions, places and people in the Palestine-Israel conflict. It explores the way colonialism and the national project deploy transformations in naming to construct places and identities and craft widespread imaginaries about these places. Names form part of cultural systems that structure and nuance the way we imagine and understand the world. They embody ideological significance and moral attributes and can be consciously mobilised for various projects of power. Words and names reference a moral grammar that underwrites and reproduces power. As such, my analytical approaches to lexicons must be embedded in historical, political and cultural frameworks. And also the article interprets the uncanny mirror-maps of Israel/Palestine by drawing on recent work in critical cartography.

\* 본 논문은 2014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 중등학, E-mail: ccm055@konkuk.ac.kr



[Key Words: Toponymy; Map of Israel/ Palestine; Critical Cartography; Toponymic Warfare; Renaming of the Place Names; Hebraicization/ Israelization of the Place Names]

## I. 서론

지난 시대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가 주로 시간 중심의 문화적 전환(轉換)에 그 초점이 있었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는 공간 중심의 비평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가 문화 및 언어이론을 거쳐 신문화 지리학(*new cultural geography*)적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사회이론을 접합시켜 문화와 권력관계에 주목하여 비평-지리학(*critical geography*)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김순배 2012, 28). 공간의 문화-비판적 연구에 있어서 지도와 지명은 탁월한 텍스트다.

지도(地圖)란 ‘지리적 실재의 상징화된 이미지이며, 정선된 특징 혹은 특성들의 재현’(symbolized image of geographic reality, representing selected features or characteristics.)이라 정의할 수 있다(Dorling and Fairbairn 1997, 3). 대부분의 지도제작은 특정 집단의 관심과 세계관 및 정치적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해 착수되며, 따라서 지도는 현저하게 권력의 언어다(Harley 1988). 한편, 지명(地名)이란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명명화(命名化)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해당 장소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와 역사 및 정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이념을 재현하기도 한다. 지명이 이름 그 이상의 문화적·정치적·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명을 ‘장소를 형성하는 경관 텍스트’라거나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문화-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주성재 2011, 443).

본 논문에서는 문화와 권력관계에 주목하여 지도와 지명의 문화-정치적 맥락—‘문화정치’는 권력이 문화적 생산과 실천의 중심에 있음을 인식하여, 사

회적 관계와 제도, 공간과 장소의 구조와 의미를 둘러싼 모든 영역을 문화적 투쟁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 하에서 논의하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지도의 제작과정과 그 속에서 진행된 지명 바꾸기/지우기 작업이 어떻게 설계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고자 한 문화·정치적 속셈은 무엇인지를 다음의 세 가지 범주에서 순서대로 논의할 것이다.

첫째, 영국 식민지시대 어떻게 팔레스타인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했는지 그 전후맥락을 알아보고, 지리적 정보가 식민지 지배와 통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현대 이스라엘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시온주의자들이 제작한 히브리어 지도가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대인의 자기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으며, 아울러 지명의 히브리어화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타자화/배제시 자기들의 토지소유권을 정당화하려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지명의 히브리어화(Hebrewcization)’는 곧 ‘팔레스타인 땅의 헤브라이즘화(Hebraicization)/이스라엘화(Israelization)’였다는 가설을 논증할 것이다.

셋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불평등한 힘의 균형 사이에서 두 민족은 어떻게 일상에서 지도를 수사적(*rhetoric*)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 이를 ‘정치지도’라 부를 것이다. — 몇몇 사례를 들어 살펴볼 것이다. 분명하게도 양측 모두 자신들의 정치지도에서는 ‘실재’ 혹은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명전쟁(*toponymic warfare*)’을 넘어 ‘지도전쟁(*topographic warfare*)’이라 불리는 이 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고조된다. 이러한 정치지도가 영토분쟁 해결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과연 대안은 없는 걸까?

## II. 식민지시대의 지도제작과 발달과정

식민지시대에 탐험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도제작이 매우 왕성한 까닭은 자명하다(Christopher 1988).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에 따르면 식



민지 권력은 인구조사(*sensus*), 지도(*map*), 박물관(*museum*)이라는 세 가지 통치수단으로 식민지 지배를 제도화한다.: 인구조사는 특정 가계(家系)나 문벌을 합법화(정통성 부여)하고, 지도는 경계와 영토 관할권/소유권을 적법화하고, 박물관은 식민지의 이미지나 지배자의 통치권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함으로써 통치를 원활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Anderson 1983). 특히 식민지배자들이 지도제작에 있어 땅의 경계를 새로 긋고, 구역을 다시 나누고, 지명을 자기 언어로 고쳐 씌으로써 토착세력으로부터 영토의 소유권과 토지의 역사성과 토착민의 정체성을 빼앗아오는 과정은 매우 치밀하다(Pinder 2003; Bassett 1944; Herman 1999; Withers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식민지시대(1917~1948년)(Kennedy 1976) 지도제작을 통해 어떻게 이 지역의 통치와 지배를 실천해 나갔는가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Levin, Mark, Galilee 2010). 이 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 가능하다.

첫째, 지리정보 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과 지도제작 기술은 공간을 분석하고 재배치하는 데 있어 역사 지도제작을 돕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다. 지도제작 기술의 현저한 발달은 지도의 정밀도를 높이고,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공간지각(*sedentarization*, 空間知覺) — 공간에 있는 물건의 방향·위치·크기·모양·거리를 인식하는 심적 경험. 공간각(空間覺)이라고도 함 — 을 돕는다.

둘째, 제국주의와 지도제작(*Imperialism and mapping*)의 관계로서 지도가 어떻게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관점이다. 여기서는 통치확장 지도가 어떻게 신뢰공간을 생산하여 공간지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통합을 이론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를 연구한다.

셋째, 법률 지리(*legal geography*) 관점에서 어떻게 지도가 땅의 경계를 나누고 토지 소유권을 정하는데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가에 관한 관심이다. 여기서는 지명의 개념화 시스템의 윤리적 차원, 즉 사회정의의 관점을 이슈로 삼는다.

세 가지 접근방식은 이론적으로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수로 연결되어 비평적 지명연구의 방법론적 지평을 넓혀나가게 해 줄 것이다(Rose-Redwood, Alderman, Azaryahu 2010, 456).

팔레스타인(Palestine)<sup>1)</sup>이라 불리는 지역은 4세기 동안(1517~1917년) 오토만 제국의 통치 하에 있었다. 이 지역의 근대식 토지등기(modern land registration)는 1858년 오토만 토지법(Ottoman Land Code)에 따라 시행되었다(Kark and Gerber 1984; Kark 1977, 1997; Fischel and Kark 2008).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지리적 경계가 명시된 토지 문서들과 촌락이나 땅의 경계가 표기된 축척 1:10,000 지도가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다. 그러나 오토만 제국은 지적도(地籍圖, Cadastral Map)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 때 제작된 팔레스타인지도는 대부분 소실되어 사라졌다(Gavish and Kark 1993).

1799년 나폴레옹의 침공과 더불어 프랑스 지도학자 피에르 자코틴(Pierre Jacotin)은 축척 1:100,000의 〈이집트 지도*Carte topographique de l'Égypte*〉(1799년)를 제작하면서 거기에 팔레스타인지역을 포함시켰다(지도1, A, 1826). 그러나 이 지도는 기하학적 형태나 지명의 오류 등 비사실적(허구적) 정보가 많이 삽입된 것으로서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Karmon 1960).<sup>2)</sup>

- 
- 1) 기원전 12세기(람세스 3세) 이집트 메디네트 하부(Medinet Habu) 신전문서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펠레세트(P-r-s-t)’는 이집트를 침공한 해양민족(Sea People)이 거주하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기록에는 그 지역을 ‘팔라슈투(Palashtu)’ 혹은 ‘필리스투(Pilistu)’라 불렀다. 기원전 5세기 고대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Herodotus)는 페니키아와 이집트 사이의 ‘팔라이스티네(Palaistinê)’라 불리는 시리아 지역 일대를 일컫는다고 했다. 그 후 이 용어는 로마의 여러 작가들—Ovid, Tibullus, Pomponius Mela, Pliny the Elder, Statius, Plutarch, Dio Chrysostom, Philo of Alexandria, Josephus, Strabo 등—에 의해 사용되었고, 기원 135년 로마제국이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써 ‘시리아-팔레스티나(Syria Palaestina)’를 둔다. 히브리성서에 약 250회 이상이나 나오는 ‘블레셋(רַבְּצִי)은 그리스어 Παλαιστίνη를 음역한 것으로써,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ἡ τῶν Φυλιστινῶν, LXX)과 함께 주로 그리스 해양민족 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해안 평야일대를 제한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7세기 확대-시리아(Greater Syria)를 정복한 아랍은 이 지역을 아랍어로 ‘필리스틴(فلسطين)’이라 불렀고, 오늘날 ‘팔레스타인(Palestine)’이라는 용어는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 이후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었다.
  - 2) 사실 당시의 지도는 ‘그림지도’에 가까웠으며, 지도제작 기술이 오늘날과 같은 ‘사실지도’를 그리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최창모(2009; 2011)를 참고



19세기 내내 주로 짧은 기간 이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들에 의해 출처 없이 함부로 수집된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지도상에 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Kark and Goren 2005).<sup>3)</sup> 당시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지도 제작은 주로 성서와 관련된 지명 찾기 작업에 불과한 것이었다. 1865년 팔레스타인탐험기금(PEF, *Palestine Exploration Fund*)의 지원으로 영국연구회(*British Research Society*)가 본격적인 조사와 지도제작 프로젝트에 돌입하는데, 1871~1877년 영국해군 대위 클라우드 콘테르(Claude Reignier Conder)와 호라찌오 키치너(Horatio Herbert Kitchener)가 주축을 이루어 모두 26장의 팔레스타인지도를 제작한다(지도 1, C, 1880)(Palmer and Besant 1881-1883; Elster 1956; Levin 2006). 1906년 터키-이집트 사이의 국경협정 — 오늘날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국경과 거의 일치한다. — 은 이 시기에 영국이 제작한 지도(지도 1, E: TSGS, *British Topographical Section General Staff*, 1906, 1907)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팔레스타인지도 제작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영국이 오토만 통치시대의 영토를 정복하고, 효과적인 지배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이 등장하고, 새로운 지리정보와 지도제작 기술의 도입과 함께 팔레스타인개발기금(PEF, *Palestine Exploration Fund*)의 자금 지원이 뒤따르면서 팔레스타인지도의 제작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건조한 남쪽 네게브사막(Negev Desert)과 시나이반도에 대한 역사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 지역은 이 시기의 지도제작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네게브가 관심사로 부상한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841년 오토만 제국과 영국 위임통치 정부 간의 분계선이 서쪽의 시나이(이집트)와 동쪽의 요르단과 더불어 네게브지역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Biger 1995). 둘째,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집트 연합군과 오토만-독일 연맹군 사이의 주요 전선이 이 지역에 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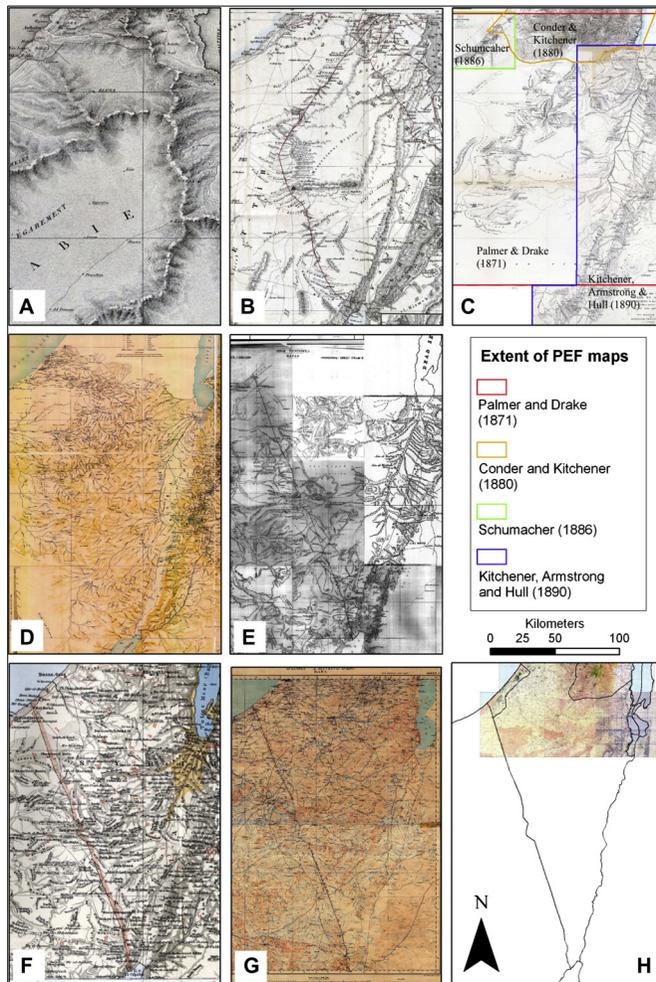
---

할 것.

3) 보다 체계적인 팔레스타인지역의 조사와 과학적인 사실지도제작을 위해 영국팔레스타인협회(British Palestine Association)가 세워진 것은 1804년의 일이었다.



[지도 1] **A:** Jacotin(1826); **B:** Kiepert(1841); **C:** Conder and Kitchener(1880), Schumacher(1886) and Kitchener, Armstrong and Hull(1890); **D:** Musil(1902); **E:** TSGS(1906, 1907); **F:** Fischer(1910); **G:** War Office(1915); **H:** Survey of Palestine (1936-1939). 지도 인용: Noam Levin, Ruth Kark and Emir Galilee, "Maps and the settlement of southern Palestine, 1799-1948,"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6(2010), p.6.





있었기 때문이다(Sheffy 1998). 셋째, 유목민(베두인)과 정주민(유대-정착민) 사이의 경쟁관계 속에서 둘 사이의 경계는 늘 유동적이어서 정주민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Epstein 1939; Krakover 1999; Meir and Marx 2005; Yahel 2006). 1799년부터 1948년까지 제작된 네게브가 포함된 지도는 총 375점으로써 강(와디), 도로, 가옥 및 유목민들의 이동경로 등과 함께 베두인 부족의 이름이나 그들이 부르는 (주로 아랍어) 지명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Levin, Kark and Galilee 2010, 3). 1915년 영국군 장교가 제작한 축척 1:125,000 지도(지도1, G, War Office, 1915)에는 이전 지도에 비해 지명은 물론 도로, 주유소, 모래언덕 및 수자원 등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보다 완성도 높은 군사목적의 지도를 제작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리적 탐사와 지도제작을 위한 조사는 유럽,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기구와 개인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독일,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은 소극적이었다(Ben-Arieh 1972; Jones 1973; Gavish 2005; Rosen 1992; Goren 2001, 2002; Frumin, Rubin and Gavish 2002; Kark 2004). 독일의 폰 램지(Von Ramsay) 소장의 명령으로 제작된 축척 1:250,000 지도는 네게브와 북부 시나이반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군사령관이자 측량사이며 '아라비아의 로렌스'(T.E. Lawrence)의 동료였던 뉴컴비(S.F. Newcombe, 1878-1956)가 제작한 1915년 지도를 거의 절반쯤 복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Gavish 2005 note 9).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축척 1:50,000의 팔레스타인지도에는 네게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토만 조사자가 만든 축척 1:200,000 지도에서조차 네게브가 등장하는 것은 1918년 이후였다(Gavish 2006). 영국군이 본격적으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지도제작에 박차를 가한 것은 1915년부터다. 전쟁본부(War Office)가 이집트탐험부대(EEF, *Egyptian Expeditionary Force*)를 만들어 제7 여단에 왕실 기술자 190명을 포함시킨 것이 1917년 말이었다. 가자(Gaza)와 브엘세바(Beer Sheba) 사이의 1,280km<sup>2</sup>의 드넓은 지역을 수개월에 걸쳐 탐사하고 사진을 찍어 축척 1:10,000 과 1:15,000의 지도를 매우 상세하게 제작하였고, 이 지도를 수천 장 복사했다



(Collier and Inkpen 2001).

1920년 영국 위임통치기구는 행정용 지도를 제작하는데, 팔레스타인조사 (*The Survey of Palestine*) 기구를 세워, 예루살렘(위임통치 정부의 수도)과 하이파(레반트 지역의 영국 항구도시) 등 전략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에서 아랍인과 유대인 두 민족의 정치적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리 이름을 조사하여 영국식 — 이 때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리이름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King George V Street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 으로 바꾸고(Azaryahu and Kook 2002, 197), 아울러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정주민 지적도(*cadastral map*)를 작성한다. 이 지적도는 영국통치 이전과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조직, 통제, ‘빈 땅’(empty lands)에 관한 통치 및 관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사용되었다(Kain and Baigent 1992; Gavish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 이후 팔레스타인조사가 작성한 보다 큰 스케일(축척)의 지도에는 네게브가 점차 빠지고, 유럽에서 이입되는 유대인 인구밀집 지역인 지중해 해안 및 갈릴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게 된다. 1930년대 유대기금(*Jewish Agency*)을 대표해서 축척 1:40,000의 히브리어지도를 처음으로 제작한 사람은 유대인 조사자 잘만 리프(Zalman Lif, Lifschitz)와 지도제작자 여호수아 한킨(Yehoshua Hankin)이었다. 그들은 유대인 소유의 땅을 표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Levin, Kark and Galilee 2010, 9).

한편, 1934년 영국이 비공식적으로 만든 거리이름위원회(SNC: *Street Names Committee*)가 두 명의 아랍인과 두 명의 유대인으로 구성되는데, 예루살렘 시의 거리이름의 경우 도시의 특성 상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감성을 담아 지명이 결정된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도시를 점령한 영국은 이미 친예루살렘협회(*Pro-Jerusalem Society*)를 두어 활동을 시작해 왔는데, 그들은 도시전승이나 정치적 이념보다는 특별히 십자군의 장군들 — 살라딘(Saladin)이나 볼드윈(Baldwin) 등 — 이나 이 도시의 기독교-유럽인 통치자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름들을 강조해 왔다. 구도시(Old City)의 경우 특별구역으로 설정하여 총 92개



의 이름을 두었는데, 주로 아랍-무슬림 역사나 비잔틴-기독교 황제나 교부 등 역사-전통과 통속명(通俗名)에서 차용해 사용했다. 하이파 시(市)의 경우 두 민족이 서로 구역을 나누어 거주했기 때문에 거리이름은 아랍지역은 아랍이름으로, 유대인 구역은 유대이름으로 각각 정해졌다. 공식적인 아랍어명명법(*Arab nomenclature*) 소개는 1930~40년대에 후반에 완료되는데, 1948년 아랍-유대인 무력충돌로 정치적·인구학적 체계모니가 유대인 측으로 넘어가면서 70여 개의 아랍어지명 — 아랍문화와 역사전통을 담은 것들로서, 상당수는 과학자(*Ibn Sina*), 철학자(*Ibn Rushd*), 시인(*Al-Bukhari*), 지리학자(*Al-Idrisi*), 칼리프(*Khaled ibn el Walid*, *Omar el Khattab*, *Haroun el Rashid*) 등 중세이슬람 황금시대의 인물들에게서 빌려온 것들이다. —만이 지정되어 남아 있다(Azaryahu and Kook 2002, 200-204).

요약하면 영국 식민지시대 정밀한 모눈 방식으로 제작된 팔레스타인지도, 특히 네게브지역에 대한 지도에서는 지형과 자연조건, 도로와 와디, 정착촌과 농업, 토지 소유권 등 식민지 지배와 통치에 필요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여기에는 초기 종종 비사실적인 정보와 부정확한 경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유대-이민자 정착에 관한 영국정부의 정책과 저의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거리이름위원회의 활동으로 대도시에는 다양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지도제작은 점차 조직화·과학화되었다. 영국이 만든 이 지도들은 UN의 팔레스타인 분할안(1947년) 논의 과정에는 물론 유대-정착민들의 지위와 토지 소유권, 거주지의 경계와 구역의 구분, 도시의 정체성 등 법적 논쟁과 정치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Levin, Kark and Galilee 2010, 18).



### III.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지도 제작과 지명의 히브리어화

현대 이스라엘의 국가건설 과정에는, 수자원 확보 같은 생존안보와 직결된 하드웨어적인 사안도 있었지만(Nijim 1990), 히브리어지도의 제작과 지명의 히브리어화같은 국가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공작(工作)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프트웨어적인 사안도 있었다. 팔레스타인 땅 — 시온주의자들은 이를 이스라엘 땅(‘에레츠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 의 헤브라이즘화/이스라엘화/재의미화(Designification)는 현대히브리어 부활의 ‘지리적 투영’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지명의 히브리어화’는 곧 ‘지도의 헤브라이즘화/이스라엘화’인 것이다. 현대히브리어의 부활은 시온주의 이념과 민족건설의 상상력을 선형적으로 지배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Gellner 1994, 166). 시온주의자 관점에서 이전에 사용해 오던 팔레스타인지역의 아랍어 이름과 지명들을 낫선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히브리어로 바꾸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들의 역사적·종교적·정치적 경험이나 기억을 지워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Peteet 2005, 158). (반대로 지명을 옛 히브리어이름으로 바꿈으로써 유대인들은 단절되었던 자신들의 역사적 기억을 자연스럽게 연결/재생시켜 준다.) 팔레스타인지역 대한 히브리어지도 제작과 그 과정은 유대인의 자기정체성과 유대국가의 민족정체성, 나아가 이 지역에 대한 유대인의 문화적·지리적·정치적 통치권을 이문융합(異文融合, *conflation*)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써 치밀하게 고안된 것이었다(Peteet 2005, 158).

1940년대 초 영국 위임통치 정부가 제작한 축척 1:100,000의 공식적인 팔레스타인지도는 대부분 아랍어 혹은 기독교 전통이 보존하여 사용해 온 지명들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당연히 2천년 만에 유럽에서 건너 온 유대민족주의자들의 눈에는 낫선 것이었다. 시온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끊어진 오래된 과거의 역사·지리적 전통을 잇고자 옛 히브리어지명들을 찾아 낫선 이름들을



대체하고자 했다. 공식적으로 체계적인 지도의 히브리어화 작업은 1949년 네게브지역의 헤브라이즘화/ 이스라엘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대민족 부활의 이념으로서 시온주의는 두 가지 주요 관심사에 집중했다. 하나는 유대민족의 고향으로서의 ‘에레츠 이스라엘’(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일과 유대민족 부활을 위한 이민자들의 정착지를 확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어로서의 히브리어 사용을 통해 유대문화의 부활을 앞당기는 것이다(최창모 2005, 423이하). 체계적인 히브리어지도 제작과 그 속 지명들을 히브리어로 고쳐 부름으로써 민족건설과 땅의 회복 및 유대문화의 부활이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Cohen and Kliot 1981, 1992).

민족재건과 국가건설이라는 정치적 운동에서 민족어로 표기된 지명(地名)은 그 땅의 문화적 건설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명은 사회적 관계와 의미생산 체계의 물리적·지리적·공간적 표현으로서 지명이 재현하는 의미가 사회적 주체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지명은 문화적 텍스트를 공유하게 만든다. 지도에 명시된 텍스트로서의 지명은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지리적 공간의 모습이 그 곳의 공간적 위치와 배치와 어울려 지도 완성을 돕는다. 다시 말해서 지명은 장소를 표시(denote)함과 동시에 그 이름과 장소의 본질에 관한 특정 이데올로기를 내포(connote)한다. 지명의 인위적 생성과 변형에는 문화·정치적 과정이 개입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언제나 특정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 여기서 지명은 권력자나 당국자가 수행한 하나의 정치행위다. 따라서 지도에 명기된 지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에 표기된 언어적 표시가 아닌,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그 장소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메시지와 사회적 실천과 의미론적 기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Duncan 1988). 예컨대 1939년 이후 독일 지배 하에서 폴란드 지역의 여러 지명들이 ‘독일어식’으로 표기된 것과는 달리, 1945년 독일이 물러난 이후 독일식 지명들을 폴란드어로 변경함— 여기에는 독일어 이름이 폴란드어화 되는 경우, 독일 지명이 폴란드어로 번역되는 경우, 그리고 폴란드어 이름이 독일어 이름을 모델로 삼아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으로써 민족적 선명성과

정체성, 역사성과 이데올로기 등을 드러내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Meyer 1992, 197).

‘에레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지명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성서나 탈무드 또는 유대교 예배와 제의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에 나오는 이름을 환치(換置)하여 사용하거나, 디아스포라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대인 이미지 제고 혹은 고향을 상기시키거나 상징하는 용어 등을 폭넓게 활용했다. 심지어 유대 이민자들의 고유한 이름조차 히브리식으로 바뀌어나갔는데, 예컨대 다비드 그루엔(David Gruen)이 다비드 벤투리온(David Beb-Gurion)으로, 골다 메이어슨(Golda Meyerson)이 골다 메이어(Golda Meir)로, 아리엘 슈바이어만(Ariel Scheinerman)이 아리엘 샤론(Ariel Sharon)으로, 모세 스몰란스키(Moshe Smolansky)가 모세 야알론(Moshe Ya'alon)으로 바뀌는 예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결코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Almog 2000, 151). 이것은 실제적인 유대 이민자들의 정착생활의 패턴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초기 유대 이민자들로 하여금 하루속히 디아스포라 시절의 낡은 껍데기를 벗어 버리고, 명실상부한 에레츠 이스라엘(이스라엘 땅)의 국민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상징적 행위인 것이었다. 이처럼 사람과 땅은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을 가질 때 견고히 결합되며,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명이 히브리어로 재명명(*re-naming*)될 때, 새 이름을 가진 새 이민자들은 비로소 그 땅의 역사-지리와 연결되며, 그 땅은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되는 것이다 (Cohen 2010, 21). 그럼으로써 ‘땅’(territory)은 ‘고향땅/ 모국’(homeland) —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시온’(Zion)으로 상징화된 고향땅(Moledet)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갈 약속의 땅, 메시아의 땅, 유토피아적 미래로 인식된 것이었다(Newman 2001, 238). — 이 된다. 이러한 지명의 (재)명명은 과거의 집단적 기억과 전통이 집단의 현재와 미래적 감각으로 (재)생산(재)탄생되기 위해 필요한 교활한 서사(書辭)이자 권력의 언설(言說)이다(Peteet 2005, 157). 이제 히브리어는 단지 하나의 ‘언어’(a language)가 아니라 영국 통치 하에서 유대문화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들과 구분하는 ‘문화’(the culture)인 것이다. “히



브리어로 생각하고 히브리어로 말함으로써 창조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히브리적’인 것이다. ‘히브리’ 정착, ‘히브리’ 경제, ‘히브리’ 교통수단, ‘히브리’ 문학, ‘히브리’ 교육이 그것들이다.”(Schweid 1995, 300).

시온주의자들이 새로 만들어 사용한 415개의 지명들 가운데서 215개가 독립 이전에 만든 것들인데, 그 중 108개는 고대이스라엘이 사용했던 ‘역사적 지명’을 복원한 것이며, 187개는 ‘상징적인 이름’이었다(Azaryahu and Golan 2001, 183).<sup>4)</sup> 영국 식민지시대 팔레스타인에서 히브리어가 영어와 아랍어와 더불어 공식어로 채택된 것이 1922년이었는데, 시온주의자들은 재빠르게 히브리어 지명이 배제되지 않고 각종 공문서나 거리이름에 삽입되도록 힘써 나갔다(Katz 1995). 1940년대 영국 위임통치 정부 하에 제작된 축척 1:100,000의 팔레스타인 공식 지도에는 3,700개 아랍어 지명이 표기되었는데, 200개 정도의 유대-정착촌만이 히브리성서에 나오는 히브리어이름을 영어 음가로 표기, 등록되어 있다. 예컨대 아랍어로 알-쿠드(*Al-Quds*)와 알-할릴(*Al-Hali*)과 아리카(*Aricha*)로 불리는 예루살렘(*Jerusalem*)과 헤브론(*Hebron*)과 예리코(*Yericho*)가 각각 히브리어에서는 예루살라임(*Yerushalaim*)과 헤브론(*Hevron*)과 제리코(*Jericho*)로 나타나는 식이다.

1949년 초대수상 벤투리온은 정부지명위원회(*Governmental Names Commission*)를 창설하고 “히브리어이름을 네게브지역의 모든 지명, 산, 골짜기, 샘, 도로에 두는데 그 역할이 있음”을 선언한다(Azaryahu and Golan 2001, 185).<sup>5)</sup> 위원회의 역할은 지리적으로 네게브지역에 국한되었는데, 이는 네게브가 독립당시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이 넘었기 때문이다. 1951년 3월 정부는 정부지명위원회 — 여기에는 고고학자 비란(A. Biran), 역사-지리학자 아비-요나(M. Avi-Yona), 지도학자 브레이버(A. Braver), 지리학자 빌나이(Z. Vilnay), 히브리문학자 요셉 클라우스너(Y. Klausner), 시온주의 지도자 벤-쯔비(Y. Ben-Zvi) 등 당대 탁월

4) 정부지명위원회(*Governmental Names Commission*)가 1952년 4월 4일 작성한 보고서, 이스라엘정부 문서보관소(*Israel State Archive, ISA*), 문서번호 C/3788/5551.

5) 정부지명위원회(*Governmental Names Commission*)가 1958년 9월에 작성한 보고서, 이스라엘정부 문서보관소(*ISA*), 문서번호 C/5551/3787.

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가 새로 이주한 유대-정착촌 모두에 히브리식 이름을 두도록 명령한다. 1952년에 설립된 히브리어아카데미(*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가 이 과업에 협력함으로써 민족재건을 위한 헤브라이즘화/이스라엘화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Azaryahu and Golan 2001, 185).

네게브지역에 대한 헤브라이즘화/이스라엘화 프로젝트는 8개월(1949-1950) 만에 완결된다. 이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의 영토와 국경으로 완전하게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온주의자들의 네게브 개척사업 — 훗날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네게브에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 네게브에 들어가 땅을 개척하며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 — 과도 연결된 작업이었다. 벤구리온은 1948-1949년 영국이 네게브를 이스라엘의 영토로부터 빼내려하자, 이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헤브라이즘화/ 이스라엘화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치와 지배권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벤구리온은 자신의 일기(1949년 6월 11일자)에 “이 지역에 히브리어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다. 만약 고대 히브리어이름이 있으면 갖다 붙이고,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Rivlin and Oren 1983, 989)고 적고 있다. 정부지명위원회 — 위원회 내에 2개의 소위원회를 두었는데, 지리소위원회에서는 영국이 작성한 지도의 지명들을 수집, 아랍어 지명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맡았고, 역사소위원회는 히브리성서, 탈무드, 이집트와 아시리아 및 그리스-로마 자료 속에 나오는 지명들을 찾아 그것들과 동일화하는 작업을 각각 수행했다. —는 총 5개 원칙 — (1)역사와 동일시화, (2)히브리성서에 나오는 이름 사용(지명에만 국한될 필요 없음), (3)아랍지명은 히브리어로 번역, (4)아랍지명의 비슷한 음가는 히브리어 형태로 전환 사용, (5)새롭고 상징적인 이름 고안 등 — 을 정하고 이 원칙에 입각하여 네게브에 총 560개의 히브리어지명을 확정하고, 1950년 축척 1:250,000 히브리어 네게브지도로 인쇄했다. 총 목록은 정부연감(1951년)에 실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첫 결실인 히브리어 네게브지도는 모든 곳에 히브리어이름을 씌우므로써 외래어 지명으로부터 (그 땅을) 정화



(淨化)시켰다.”고 선언하고 있다(Azaryahu and Golan 2001, 186).<sup>6)</sup> 이에 대해 벤구리온은 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내 노고를 치하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름으로 나는 귀하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프로젝트인 네게브의 모든 지역 — 산, 언덕, 골짜기, 강, 나그네, 샘, 능선, 우물과 분화구에 (히브리)이름을 붙이는 과업의 성과를 치하하고 감사한다. 그대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언어를 몰아냄으로써 외국인의 지배로부터 네게브를 해방시킨 이스라엘방위군이 시작한 과업을 비로소 완성했다. 나는 그대가 외국어의 통치로부터 에레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회복할 때까지 이 과업을 계속 수행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Azaryahu and Golan 2001, 187).<sup>7)</sup>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 사이 정부지명위원회는 북쪽지역에 대한 같은 작업을 착수한다. 170개의 새 이름을 제안하고, 그 중 25개의 지명은 사료(史料)의 것을 차용했다. 정부지명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시작된 지명의 히브리어화 작업은 점차 전 국토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아랍어지명을 모두 히브리어 이름으로 대체하고, 지도에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새 지명을 부여한다.”는 행정지침을 재확인 하였다. 이로써 모든 아랍어지명 — 그것이 개인 이름이든 별칭이든 불문하고 — 을 폐지하고, 지명이 자연현상, 땅모양, 장소의 특성 등을 나타내는 것들은 모두 같은 뜻의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음가가 비슷한 경우 히브리어이름으로 계상(計上)하도록 했다(Azaryahu and Golan 2001, 187).<sup>8)</sup>

아랍어지명을 히브리어로 바꾸는 작업은, 두 언어 사이의 뿔 수 없는 언어학적 혈통관계와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새로 부활한 현대히브리어가 점차 유대인의 일상어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과정과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었다.

6) 정부지명위원회(Governmental Names Commission)가 1952년 4월 4일에 작성한 보고서, 이스라엘 정부문서보관소(ISA), 문서번호 C/5551/3788.

7) 벤구리온이 1950년 9월 6일, 정부지명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 이스라엘정부문서보관소(ISA), 문서번호 C/5550/3782.

8) 수상실에서 지리위원회에 보낸 행정지침 1, 이스라엘정부문서보관소(ISA), 문서번호 C/3783/5550.

현대히브리어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예후다(Eliezer Ben-Yehuda)는 히브리어와 아랍어 사이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이며 영적인’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두 셈어(Semitic language)는 거의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Ben-Yehuda 1940, 10). 그러나 유대-아랍 민족갈등의 틀에서 볼 때, 이것은 상호간에 역사적 권리나 정체성의 차원을 넘어 그 지역이나 영토의 통치권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아랍-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땅 점령과 점령지 내에 건설된 모든 유대-정착촌은 물론 자신들의 고유한 아랍어지명들이 시온주의자들에 의해 히브리어이름으로 바뀌거나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는 국제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당한 것임에 반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모든 아랍지명은 본래의 히브리어이름을 왜곡시킨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작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Bar-Ilan 1996, 9; Elitzur 1996, 5).

이스라엘 정부지명위원회가 1955년에 제작한 축척 1:250,000 이스라엘전도(全圖)와 그 후 3년이 걸려 1958년에 완성한 축척 1:100,000 이스라엘전도에는 총 3,000여개의 히브리어지명이 등록되었다(Azaryahu and Golan 2001, 187).<sup>9)</sup> 지도에 표시된 색인만 해도 강과 지류를 포함 총 780개의 이름이 올라있다. 220개의 강 이름은 히브리성서지명에서 따왔으며, 520개의 샘 이름은 히브리성서와 탈무드에서 차용했으며, 720개의 텔(Tel)과 유적 중에서 170개는 역사적인 지명과 동일시했고, 560개의 산과 언덕의 히브리어지명이 지도에 올랐다. 1960년대 보고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시까지 총 5,000여개의 히브리어지명을 이름 붙였다(Azaryahu and Golan 2001, 188).<sup>10)</sup> 지명위원회는 “지도에 지명이 없는 한 누구도 그곳을 소유할 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필수불가결한 선전수단인지 잘 알고 있었다(Azaryahu and Golan 2001, 188).

9) 정부지명위원회(Governmental Names Commission)가 1958년 9월에 작성한 보고서, 이스라엘정부문서보관소(ISA), 문서번호 C/3787/5551.

10) 정부지명위원회(작성일자 없음), 이스라엘정부문서보관소(ISA), 문서번호 C/3787/5551, 1.



요약하면 시온주의자들의 히브리어지도 제작은 유대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자 정치적으로 유대인이 그 땅을 통치한다는 명시적 선언이었으며, 지명의 헤브라이즘화/ 이스라엘화는 팔레스타인지역의 영토를 재영토화(*re-territorialize*)함으로써 ‘영토에 뿌리박고 있는’(territorially rooted) 팔레스타인의 정체성과 영토주권을 소리 없이 박탈하는 것이었다(Cohen 2010, 20). 1992년 현재 이스라엘 정부지명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약 7,000여개의 히브리어지명을 사용한다고 공식 발표한바 있다(Azaryahu and Golan 2001, 192). 민족과 땅은 강력하게 연결된다. 거기에 언어가 개입되면 지배력이 완성된다. 유대민족의 히브리어지도는 단순히 아랍-팔레스타인의 아랍어지도로 대체한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지도에서 아랍어를 지우고 거기에 히브리어지명을 써 넣는 것은 곧 그 땅에서 아랍민족의 과거를 지우고 유대인의 ‘오래된 미래’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 정책을 꼭 빼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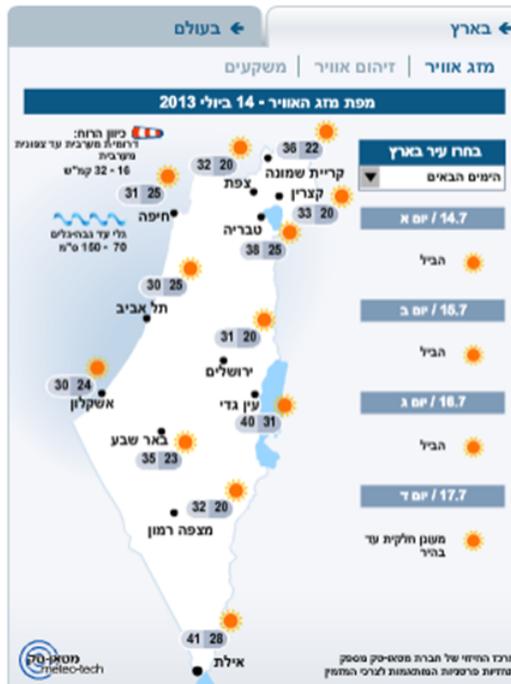
#### IV.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정치지도와 지도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땅은 하나이자 동시에 둘이다.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의 쪼개진 모양의 이 땅은 지도에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대립한다. 팔레스타인들은 그 땅을 ‘필리스티나(فلسطين)’ 혹은 ‘역사적 팔레스타인(historical Palestine)’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에레츠 이스라엘(ארץ ישראל, 이스라엘 땅)’ 혹은 ‘확대 이스라엘(Greater Israel) — 팔레스타인들의 지도와는 달리 이스라엘 지도에는 1967년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고원이 포함되어 있다. — 이라 부른다. 불평등한 힘의 균형 사이에서 두 민족은 지도를 수사적(rhetoric)으로 사용한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상당수의 이스라엘지도 [지도 2]와 팔레스타인지도 [지도 3]에는 두 영토가 단일체로 통합되어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나 지



[지도 1] 이스라엘 날씨지도에는 점령지 웨스트뱅크(West Bank)와 가자지구(Gaza)가 합병되어 있다. 출처: 이스라엘 히브리어 일간지 <ינונורא תועדי> Yediot Aharonot, 2013년 7월 14일, 홈페이지 <http://www.ynet.co.il/home/0,7340,L-201,00.html>에서 저자가 캡처.



리학적으로 국제협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상 이스라엘은 1967년 이전의 국경을 존중해하고, 팔레스타인은 1993년 자치정부가 세워진 이래 자치지구에 한하여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도를 제외하고는 양측 모두 단일체로 표시하고 있다. 분명하게도 정치지도에서는 ‘실재’를 보여주지 않는다(Wallach 2011, 359).

**이스라엘지도**의 경우 지도가 선전수단이나 민족 상징으로 이용된 것은 시온주의자 운동 초기부터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영국 식민지시대 팔레스타인지도는 시온주의자들의 포스터, 우표 등에서 히브리어로 ‘에레츠 이스라엘(이스

[지도 3] 아랍도시가 아랍어로 새겨진 팔레스타인지도 목걸이. 경계는 물론 텔아비브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출처: Yair Wallach 논문(2011) 360쪽에서 가져 옴.



[지도 4] JNF box (1934).  
출처: KKL-JNF photo archive, Yair Wallach 논문(2011) 363쪽에서 가져 옴.



라엘 땅'로 자주 등장한다. 종종 제의에 사용되는 성물(聖物)에도 등장하여 유사-종교적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블루 박스'(Blue Box)라 불리는 시온주의자 기부저금통에 새겨진 지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수백만 개나 제작되어 전 세계 유대인에게 뿌려진 이 저금통은 시온주의자 운동기구 내의 선전국이 주축이 되어 팔레스타인 토지매입자금을 위해 조성된 유대 민족기금(JNF, *Jewish National Fund*)이 배포한 것으로써 팔레스타인전도가 아무런 경계 없이 유대-정착촌만이 표시되어 있으며, 유대 '땅 회복'(Land Redemption)을 위해 기부해 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Wallach 2011, 363). [지도 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온주의자의 지도가 현대유대국가의 정체성을 고대이스라엘의 역사-지리적 서사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50년대 네게브지역에 붙인 히브리어지명들이 히브리성서나 탈무드 등에 나오는 것들을 사용한 것과 같은 원리다. 여기서 약 2,000년간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고



대히브리인과 현대 유대인들 사이에 정서적 연결고리가 생기고, 고대이스라엘과 현대 유대국가가 곧바로 역사적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그 땅의 오래된 주인인 것처럼 정치적 정통성을 획득하게 만드는데 반해, 수천 년간 그 땅에서 살아온 팔레스타인들과 토착 아랍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역사와 단절되고, 그 땅과의 삶의 정서적 고리는 끊어지고, 정치적 권리와 소유권자로서의 정통성은 의심받도록 만듦으로써 팔레스타인의 자기정체성은 고스란히 거세되고 만다(Peled-Elhanan 2008). 여기서 누가 그 땅의 주인이고 누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지가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지도가 권력의 수사적 재현이라 한다면 시온주의자들의 지도는 이념적으로 식민주의화의 도구처럼 읽힌다. 왜냐하면 그 지도에서는 어디서도 팔레스타인들이 내쫓기거나 토지소유권을 강탈당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Said 1994). 지도가 자신의 고유한 정서적 속성(*affective quality*)과 수행적 역할(*performative role*)을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가 될 때 지도가 보여주는 수사적 과장은 대중조작을 통해 지리적 인식과 정치적 시야를 심하게 왜곡시켜 망가뜨리고 만다(Biggs 1999). 땅을 도둑질당한 팔레스타인들은 자기정체성마저 도둑질당한 채 자신들의 땅에서 주변화되어 낯선 이방인이 되고 말았다(Falah 2003, 206).

**팔레스타인들의 지도** 및 지도제작의 역사는 아직까지 연구 중의 사안이기도 하나, 팔레스타인지도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의 일이다. 기금모금 용 비공식 우표에서 팔레스타인지도가 나타난다. 영국군과 시온주의 식민주의자에 대항하여 총 쫓기하여 일어난 아랍 반란(1936-1939) 기간 중인 1938년 옹바(Jaffa)에서 인쇄된 우표 세트에는 바위 사원(이슬람)과 성묘교회(기독교) 그림과 함께 영어와 아랍어로 '아랍인을 위한 팔레스타인'(*Palestine for the Arabs*)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지도가 나온다(Shaath & Mikdashi 1981). 이슬람과 기독교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새겨 넣음으로써 성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두 종교 간의 연대의식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Sorek 2004). 아랍지도 역시, 시온주의자들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위임

통치 하의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경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네게브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대신 요르단 강 동쪽, 즉 팔레스타인 영토 바깥까지 포함된다. 이는 아랍민족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청이 그어 놓은 지정학적 틀, 즉 경계 따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Doumani 2007).

아랍민족주의자들이 만든 팔레스타인지도가 크게 위축된 것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즉 자신들에게는 '나크바'(Nakba, 재앙)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위임통치정부가 그어 놓은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영토가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가자, 고향 마을과 가옥들이 파괴되거나 빼앗겨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등지로 쫓겨나고 말았다(Sa'di 2002). 1948년 이전의 아랍정치 운동의 목표와 이상이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자유와 해방에 있었다면, 집(고향)을 빼앗긴 이후의 운동은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이름이 배제되고, 부정되고, 쪼개지고, 정치적으로 분열된 '나크바'의 트라우마(trauma)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현실화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무장투쟁이었다(Sayigh 1997).

이제 영국 식민지청이 만든 팔레스타인지도가 팔레스타인들의 상징인 지리-몸(geo-body)이 되었다. 1960년대 초 팔레스타인지도가 아랍 우표나 예술작품, 또는 정치적 구호나 낙서 등에 다시 등장했다(Wolinetz 1975). [지도 5]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정치기구들 — 파타(Fatah)를 포함하여 하마스(Hamas) 등 — 은 자신들의 로고나 문구

[지도 5] 쿠웨이트가 제작한 팔레스타인 기념우표, 1968. 출처: Mr. Joseph Morris, USA. Yair Wallach 논문(2011) 364쪽에서 가져 옴.



나 포스터 등에 영국 식민지청이 만든 팔레스타인지도를 넣고 있으며, 아울러 이슬람 지하드를 나타내는 용어를 도시명 — 하이파 근처의 아랍도시 *Umm el Fahm*이나 텔아비브 동쪽 아랍도시 *Kfar Kasm* 등. *Kfar Kasm*의 경우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 국경수비대와와의 충돌로 48명의 시민이 학살당한 곳이다. — 이나 거리이름에 부여함으로써(Azaryahu and Kook 2002, 197)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맞서 자신들의 단일 정체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다(Wallach 2011, 365).

**1990년대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 과정은 사실상 영토분할이라는 ‘지리-정치적’ 압초에 부딪쳐 오늘 날까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Newman 2002). 앞서 보았듯이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이 영토 야망에 있어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라는 극단적 입장을 채택하는 한 상대의 권리는 부정된다. 지난 수십 년간 평화협상 과정에서조차 이러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는데, 팔레스타인지도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되었듯이 이스라엘지도에서 팔레스타인 영토는 최소한 여전히 군사점령 상태에 놓여있다. 두 민족 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과정에서 ‘두-국가 해결책’(two-state solution)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단일국가론’(one-state solution)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및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일국가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두-국가 해결책’은 결국 분리정책의 또 다른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지 간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려는 정치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민족, 땅, 종교, 정부 등의 개념은 민족국가 개념을 넘어서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단일체로 나아갈 때 진정한 화해와 상생이 가능해진다고 본다(일란 파페, 2009). 여기서는 두-국가 해결책과는 달리 지리적 경계 굵기보다 정치적 헤게모니 다툼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문화적-정치적 갈등에서 일어나는 투쟁은 헤게모니 즉, 지배집단 또는 지배 계급이 주도적으로 공간의 생산을 통제하려하고, 이러한 지배는 하위집단들의



반해계모니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전받는다. 저항은 때때로 비타협적이며, 상호배제적이며, 대립적이며, 또한 상징적이기도 하다. ‘상징적 저항’이란 지배문화로부터 일정한 이미지와 의미를 도용하여 종속집단에게 유리한 새로운 의미와 의미를 가진 상징적 형태로 이들을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Cosgrove and Jackson 198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지역의 산과 강과 마을과 도시 등에 붙여져 있던 아랍어지명을 히브리어지명으로 바꿔 그 위에 덧댐으로써 마치 자신들의 고토(古土), 즉 시온(Zion)을 되찾은 것처럼 입안하고 과거의 기억을 재창조함으로써 오늘날의 자신들의 지배권이 연속적이며 영속적인 것임을 강조하려고 지도를 이용했다면, 팔레스타인들은 점령 하에 있는 자신들의 영토가 영원한 민족단결을 위한 닻으로 상징화함으로써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신들이 언젠가 돌아와 파괴된 고향을 재건하고 지워진 역사를 재생시켜 민족정체성을 하나로 규합하고자 지도를 활용했다. 하지만 아마도 두 민족이 품고 있는 풀 수 없는 야망과 망상 — 한쪽은 결코 연결될 수 없는 신화적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사이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야망, 다른 한쪽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목표를 향한 현실도피적인 반전(反轉)/역전(逆轉)의 망상<sup>11)</sup> — 은 거의 자기 폐쇄적인 것이기에 해결 불가능한 것에 더 가깝다.

과연 이러한 정치지도가 영토분쟁 해결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호 배타적 정치지도에서 상대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상대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여 아예 그들을 자신의 영토에 편입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반동적인 상호대응만 강화될 뿐, 어떤 대화나 타협은 물론 변증법적 논쟁조차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부정의 문법은 고도의 불안정성만을 드러낸다. 이것은 싫든 좋든 둘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림으로써 타자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해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us)’의 안정성과 합법성의 토대를

---

11) 레바논 작가 엘리아스 쿠리(Elias Khoury)의 소설 《낯선 이들의 왕국(The Kingdom of Strangers)》(1993)은 총에 맞아 죽은 11살 팔레스타인 소년 파이잘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을 꾸지만, 그것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판타지임을 묘사한다.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지리적 정신분열증’(geographic schizophrenia)일 뿐이다. 두 적대자의 비대칭적·적대적 관계는 유기적인 하나의 지리-몸(a single geo-body)으로서의 집단(Winichakul 1994)으로 결코 자리매김할 수 없을 것이다(Wallach 2011, 360).

요약하면 지도제작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거울-이미지(mirror-image) 양상은 이 지역의 통치와 지배를 둘러싼 정당성을 얻기 위한 제국주의적 발상임은 몇몇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 사실이다(Benvenisti 2000; Gavish 2005; Moscrop 2000). 이러한 연구는 이스라엘지도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식민주의적 도구로서 활용된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해 준다(Harley 1989). 팔레스타인지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긴 하지만, 종종 저항의 선전효과를 위해 활용된다(Mogel & Bhaga 2008). 두 진영 모두 각각의 지도를 민족운동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스라엘지도는 시온주의-민족주의 운동의 정당성과 통치의 권한 강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지도는 이스라엘지도의 대응지도(counter-map)로서 저항의 선전용으로 각각 활용되고 있다(Wood 2010, 246). 카드몬(N. Kadmon)은 지배권력 또는 지배계급으로부터 주변화된 민족이 저항적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지도 위에 지명을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다시 쓰거나 도용하는 현상을 일컬어 ‘지명전쟁’(toponymic warfare)이라 불렀다(Kadmon 2004). 지도에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집단에 대응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언어적으로 재디자인(linguistic redesign)된다.

## V. 결론

비교적 최근(1990년대 이후) 시도되는 인문지리학계의 비평-지도학(Critical Cartography)은 특히 비판적-정치적 지명(critical-political toponymy)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명의 사회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정치적



갈등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명을 민족 혹은 언어집단의 기원과 이주, 언어의 분포와 전파를 확인해주는 지표로 삼았던 전통적(traditional) 인문지리학의 연구 경향과는 달리, 비평-지도학은 지명에 내재된 권력과 의미를 고찰하거나, 공적 기억의 텍스트로서의 지명을 분석하고, 이데올로기적 담론과 권력의 헤게모니적 구조화를 재현하는 지명의 의미 등을 비평적(critical)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김순배 2012, 29, 30). 여기서는 장소(공간)나 이름(지명)의 기원이나 어원보다는 그것들이 지닌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권력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Rose-Redwood, Alderman, Azaryahu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보타니 만에 상륙하여 토착 지명들을 영국식 지명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지리적 '발견'을 수행했던 것처럼(Rose-Redwood, Alderman, Azaryahu 2010, 453), 또한 미군이 점령한 바그다드 구도시의 역사적 뼈대를 이루는 알-라시드(*Al-Rashid*)나 쿨라파(*Khulafa*)의 거리에 오클라호마나 펜실베이니아 거리 같은 '친숙한' 이름을 두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주려한 것처럼(Rose-Redwood, Alderman, Azaryahu 2010, 453), 일제 강점기 부산의 일본거류지 팽창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배치 및 지명의 변화처럼(신지원 외 2012),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아랍어지명을 고대히브리어 지명으로 바꿈으로써 2,000년간 단절되었던 자신들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복원'했다. 이는 민족통합과 국가건설이라는 내집단의 정치적 과업을 달성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토착집단의 언어와 지명을 삭제하거나 변형시켜 토착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리거나 왜곡시켜 그들을 주변화·타자화시킴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통치와 지배를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저항집단의 대응 문화현상으로 이어져 끊임 없는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나아가, 마치 테러와 반테러가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반동적인 '지명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 아랍지역들에서 제작되는 팔레스타인지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지도 및 지명 갈등은 하나의 영토에 대한 한쪽의 소유권 및 통치권의 정당성 선언과 다른 쪽의 대응선언이 상호교차하면서 갈

등은 더욱 고조된다. 지도를 영토의 구획화선언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한 갈등과 저항의 악순환은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상호간에 잘못된 오해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지도의 비영토화(*de-territorialise*) 선언 — 지도가 문화적 기억, 역사와 정체성의 상징 혹은 서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도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순전히 영토(territory)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야말로 지도의 ‘텅 빈 시니피에(*empty signifier*)’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니피앙(*signifiant*)으로 만들지 모를 일이다(Wallach 2011, 361).

[주제어: 지명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지도, 비평-지리학, 비평-지도학, 지명전쟁, 지명 바꾸기, 지명의 헤브라이즘화/ 이스라엘화]

## 참고문헌

- 김순배 (2012). “비판적-정치적 지명 연구의 형성과 전개—1990년대 이후 영미권 인문지리학계를 중심으로,” 『地名學』 18, 27-73.
- 신지원, 김영분, 김기수 (2012). “근대기 부산일본전관거류지 일대의 도시 공간 변화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1, 283-286.
- 일란 파페 (2009). 《팔레스타인 현대사: 하나의 땅, 두 민족》, 유강은 역, 후마니타스.
- 주성재 (2011),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6-4, 442-464.
- 최창모 (2005). 『이스라엘사』, 서울: 대한고과서(주)
- 최창모 (2009). “중세이슬람 고지도(古地圖)의 발전과정과 세계이해,”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9-3, 183-208.
- 최창모 (2011). “옛 기독교인의 성지지도에 나타난 예루살렘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3-4, 1-62.
- Almog, O. (2000). *The Sabra: the Creation of the New Jew*, Tel Aviv. (in Hebrew)
-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 Azaryahu, Maoz and Golan, Arnon. (2001). “(Re) naming the landscape: The formation of the Hebrew map of Israel 1949-1960,”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7-2, 178-195.
- Azaryahu, Maoz and Kook, Rebecca. (2002). “Mapping the nation: Street names and Arab-Palestinian identity: three case studies,” *Nations and Nationalism* 8, 195-213.
- Bar-Ilan, D. (1996). “Archeology used to bash Israel,” *Jerusalem Post*, 5 April, 9면.
- Bassett, T. (1994). “Cartography and empire building in nineteenth-century west Africa,” *Geographical Review* 84, 316-335.
- Ben-Arieh, Y. (1972). “The geographical exploration of the Holy Land,”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04, 81-92.
- Benvenisti, M. (2000). *Sacred landscape: The buried history of the Holy Land since 194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Yehuda, E. (1940). *Prolegomena to the Complete Dictionary of Ancient and Modern Hebrew*, Jerusalem.

- Biger, G. (1995). *Th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Boundaries*, Israel.
- Biggs, M. (1999). "Putting the state on the map: cartography, territory, and European State formatio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1, 374-411.
- Cohen, Nir. (2010). "From legalism to symbolism: anti-mobility and national identity in Israel, 1948-1958,"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6, 19-28.
- Cohen S.B. and Kliot, N. (1981). "Israel' place-names as reflection of continuity and change in nation-building," *Names* 29, 227-248.
- Cohen, S.B. and Kliot, N. (1992). "Place-names in Israel' ideological struggle over the administered territor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4, 653-680.
- Collier, P. and Inkpen, R.J. (2001). "Mapping Palestine and Mesopotamia in the First World War," *The Cartographic Journal* 38, 143-154.
- Cosgrove, D. and Jackson, P. (1987). "New Directions in the Cultural Geography," *Area* 19-2, 95-101.
- Dorling, Daniel and Fairbairn, David (1997). *Mapping: Ways of Representing the World*, London: Routledge.
- Doumani, B. (2007). "Palestine versus the Palestinians? The iron laws and ironies of a people denied,"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36, 49-64.
- Duncan, J. and Duncan, 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117-126.
- Elitzur, U. (1996). "Point out: Hevron, Schechem and Jerusalem," *Yediot Ahronot*, 30 September, 5면.
- Elster, J. (1956). "The British Palestine Exploration Fund map," in J. Elster, M. Gilead, D. Amiran, N. Rosenan, M. Girdon, M. Zidon and N. Kadmon, Eds., *Atlas of Israel*, Jerusalem, Israel, I/6. (in Hebrew)
- Epstein, E. (1939). "Bedouin of the Negeb,"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71, 59-73.
- Falah, Ghazi-Walid. (1989). "Israelization of Palestine hum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3, 535-550.
- Falah, Ghazi-Walid. (2003). "Dynamics and patterns of the shrinking of Arab lands in Palestine," *Political Geography* 22, 179-209.
- Fischel, R.S. and Kark, R. (2008). "Sultan Abdu' lhamid II and Palestine: private lands and imperial policy," *New Perspectives on Turkey* 39, 129-166.
- Frumin, M. Rubin, R. and Gavish, D. (2002). "A Russian Naval Officer's Chart of Haifa Bay(1772)," *Imago Mundi* 54, 125-128.



- Gavish, A. (2005). *A Survey of Palestine under the British Mandate, 1920-1948*, London.
- Gavish, D. (2006). "The Ottoman topographical mapping in Palestine, 1917-1918," in E. Pimentel and E. Schiller, eds., *The First World War in Palestine: the Day After, The Battles Around Beer Sheva in November 1917*, Sde-Boker, 13-17.
- Gavish, D. and Kark, R. (1993). "The cadastral mapping of Palestine, 1858-1928," *The Geographical Journal* 159, 70-80.
- Gellner, E. (1994). *Encounters with Nationalism*, Oxford.
- Goren, H. (2001). "Scientific organizations as agents of change: the Palestine Exploration Fund, the Deutsche Verein zur Erforschung Pala'stinas and nineteenth-century Palestin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7, 153-165.
- Goren, H. (2002). "Sacred, but not surveyed: nineteenth-century surveys of Palestine," *Imago Mundi* 54, 87-110.
- Harley, J.B. (1988) "Maps, knowledge and power," in D. Cosgrove and S. Daniels, eds.,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Cambridge, 1988, 277-312.
- Harley, J.B. (1989). "Deconstructing the map," *Cartographica* 26, 1-20.
- Herman, R. (1999). "The aloha state: place names and the anti-conquest of Hawai',"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9, 76-102.
- Jones, Y. (1973). "British military surveys of Palestine and Syria, 1840-1841," *The Cartographic Journal* 10, 29-41.
- Kadmon, N. (2004). "Toponymy and geopolitics: the political use- and misuse- of geographical names," *The Cartographic Journal* 41, 85-87.
- Kain, R. and Baigent, E. (1992). *The Cadastral Map in the Service of the State, A History of Property Mapping*, Chicago and London.
- Kark, R. (1977). "Land purchase and mapping in a mid-nineteenth-century Palestinian village,"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29, 150-161.
- Kark, R. (1997). "Mamluk and Ottoman cadastral surveys and early mapping of landed properties in Palestine," *Agricultural History* 71, 46-70.
- Kark, R. (2004). "The lands of the Sultan — newly discovered Ottoman cadastral maps in Palestine," in G. Tolia and D. Loupis, Eds., *Mediterranean Cartographies*, Athens: Institute for Neohellenic Research INR/NHRF, 197-222.
- Kark R. and Gerber, H. (1984). "Land registry maps in Palestine during the Ottoman period," *The Cartographic Journal* 21, 30-32.



- Kark, R. and Goren, H. (2005). *Pioneering British-Holy Land Exploration: the Palestine Association, The RGS and the PEF, ASTENE*(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ravelers to Egypt and the Near East), International Conference, Manchester, UK.
- Karmon, Y. (1960). "An analysis of Jacotin's map of Palestine," *Israel Exploration Journal* 10, 155-173.
- Katz, Y. (1995). "Identity, nationalism, and place names: Zionist efforts to preserve the original local Hebrew names in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mandate government of Palestine," *Names* 43, 103-118.
- Kennedy, Paul M. (1976). "The tradition of appeasement in British foreign policy 1865-1939,"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 195-215.
- Kliot, N. and Waterman, S. "The political impact on writing the geography of Palestine/Israe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4(1990), 237-260.
- Krakover, S. (1999). "Urban settlement program and land dispute resolution: the State of Israel versus the Negev Bedouin," *GeoJournal* 47, 551-561.
- Levin, N. (2006). "The Palestine Exploration Fund map (1871-1877) of the Holy Land as a tool for analyzing landscape changes: the coastal dunes of Israel as a case study," *The Cartographic Journal* 43, 45-67.
- Levin, Noam. Kark, Ruth. and Galilee, Emir. (2010). "Maps and the settlement of southern Palestine, 1799-1948,"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6, 1-18.
- Meir, A. and Marx, E. (2005). "Land, Towns and Planning: the Negev Bedouin and the State of Israel," *Geography Research Forum* 25, 43-62.
- Meyer, E. (1992). "Die mittelalterlichen deutschen Stadtnamen im Bereich der späteren preussischen Provinz Schlesien und ihre heutige polnischen Entsprechungen," *Mitteilungen des Beuthener Geschichts- und Museums-vereins* 50.
- Mogel, L. & Bhaga, A. (2008). eds., *An atlas of radical cartography*, Los Angeles: Journal of Aesthetics & Protest Press.
- Moscrop, J.J. (2000). *Measuring Jerusalem: The Palestine exploration fund and British interests in the Holy Land*, London; New York: Leicester University Press.
- Newman, David. (2001). "From national to post-national territorial identities in Israel-Palestine," *GeoJournal* 53, 235-246.
- Newman, David. (2002). "The geopolitics of peacemaking in Israel-Palestine," *Political Geography* 21, 629-646.



- Nijim, Basheer. (1990). "Water Resources in the History of the Palestine-Israel Conflict," *GeoJournal* 21, 317-323.
- Palmer, E.H. and Besant, W. (1881-1883). eds., *The Survey of Western Palestine, Memoirs of the Topography, Orography, Hydrography and Archaeology*, 3 Vols., London.
- Peled-Elhanan, N. (2008). "The denial of Palestinian national and territorial identity in Israeli schoolbooks of history and geography 1996-2003," in R. Dolón, & J. Todolí, eds., *Analysing identities in discourse: Discourse approaches to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Philadelphia: J. Benjamins.
- Peteet, Julie. (2005). "Words as interventions: naming in the Palestine-Israel conflict," *Third World Quarterly* 26, 153 -172.
- Pinder, D. (2003). "Mapping worlds: cartograph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A. Blunt, P. Gruffudd, J. May, M. Ogborn and D. Pinder, eds., *Cultural Geography in Practice*, London, 172-187.
- Rivlin, G. and Oren, E. (1983). eds., *The War of Independence. Ben-Gurion's Diary* III, Tel Aviv.
- Rose-Redwood, Reuben. Alderman, Derek and Azaryahu, Maoz (2010). "Geographies of toponymic inscription: new directions in critical place-name stud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 453-470.
- Rosen, B. (1992). "Mapping the coastline of Israel by the British navy," *Cathedra* 64, 59-78. (in Hebrew)
- Rosmer, Tilde. "Resisting 'Israelization': The Islamic Movement in Israel and the Realization of Islamization, Palestinization and Arabization," *Journal of Islamic Studies* 23(2012), 325-358.
- Sa'di, Ahmad H. (2002) "Catastrophe, memory and identity: Al-Nakbah as a component of Palestinian identity," *Israel Studies* 7-2, 175-200.
- Said, E. (1994). *The politics of dispossession: The struggle for Palestinian self-determination*, London: Chatto & Windus.
- Sayigh, Y.Y. (1997). *Armed struggle and the search for state: The Palestinian national movement, 1949-199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eid, E. (1995). *The Idea of Judaism as a Culture*, Tel Aviv.
- Shaath, N.A. & Mikdashi, H. (1981). *Palestine: Stamps (1865-1981)*, Beirut: Dar al-Fata al-Arabi.
- Sheffy, Y. (1998). *British Military Intelligence in the Palestine Campaign 1914-1918*, London.
- Sorek, T. (2004). "The orange and the 'cross in the crescent': imagining Palestine



- in 1929,” *Nations and Nationalism* 10, 269-291.
- Wallach, Yair. (2011). “Trapped in mirror-images: The rhetoric of maps in Israel/Palestine,” *Political Geography* 30, 358-369.
- Winichakul, T. (1994).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ithers, C. (2000). “Authorizing landscape: ‘authority’ naming and the Ordnance Survey’s mapping of the Scottish Highland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6, 532-554.
- Wolinetz, H. (1975). *Arab Philatelic propaganda against the State of Israel*, Ann Arbor: H. D. Wolinetz.
- Wood, D. (2010). *Rethinking the power of maps*, New York: Guilford Press.
- Yahel, H. (2006). “Land disputes between the Negev Bedouin and Israel,” *Israel Studies* 11, 1-22.

논문접수일: 2014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1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6일

